

오순절 후 열여섯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6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0년 9월 20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535 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새 487)	인도자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8 번 이사야 (Isaiah) 42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문일호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히브리어(Hebrews) 11:32-40	임소영 집사
설 교 Sermon	“궁극적인 믿음” (The Ultimate Faith)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희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77 장 “예수 따라가며” (새 449)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경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된 생각과 진실하지 못한 말과 죄악된 행실을

여과없이 드러내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을 앞세웠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도 참된 믿음을 드러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 2:17, 고전 3:16, 시 51:10)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 하였느니라.” (한글개역 **히 11:38**)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They wandered in deserts and mountains, and in caves and holes in the ground.” (NIV **Hebrew 11:38**)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9/20 (주일)	9/21 (월)	9/22 (화)	9/23 (수)	9/24 (목)	9/25 (금)	9/26 (토)
본문	삼하16	삼하17	삼하18	삼하19	삼하20	삼하21	삼하22
	고후9	고후10	고후11	고후12	고후13	갈1	갈2
	겔23	겔24	겔25	겔26	겔27	겔28	겔29
	시70,71	시72	시73	시74	시75,76	시77	시78:1-37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9/23 오후7:30)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민 27:1-11)
토요 새벽기도회 (9/26 오전6:30)	“여호와께 감사하며 기뻐하리로다” (시 9:1-14)

지난 주일(9/13) 말씀

“믿음으로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히 11:30-31)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믿음의인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호수아를 (먼저) 언급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라합’을 믿음의 인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라합’을 가리켜, ‘기생’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생계를 위해 몸을 파는 여인이었고, 유대인이 아닌, 아모리 족속에 속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을,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믿음의 인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메시지는) 1)첫째, 우리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 (히11:30), 2)둘째,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진노와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이며 (히11:31), 3)셋째, ‘라합’과 같이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라합은 (어쩌면) 여리고 성 안에도 속할 수도 없었고, 여리고 성 밖에 속할 수도 없는 경계에 머물던 자였지만, 그래서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였지만, 성경에는 라합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명령(살라)과 하나님의 구원 명령(살리라)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결코 멸망치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참된 은혜가 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진정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